



## 정학철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참석



정학철 부위원장(오른쪽 사진 왼쪽 첫 번째)과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오른쪽 사진 왼쪽 두 번째)은 10월 18~19일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제14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했다.

18일 본회의에서 김정숙 위원은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법적 효력과 처리절차 및 조정중재 실적 등을 설명하고, 유럽의 언론평의회와 비교해 위원회의 조정중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언론평의회와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잔혹한 사건보도의 윤리적 딜레마' 등 언론보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언론평의회와 법률적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언론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유럽언론평의회연맹은 언론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네트워크로, 1999년 유럽을 주축으로 구성돼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이수중 총무팀장,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 발제



이수중 총무팀장은 10월 23일 한국법학원이 주최한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에 참여해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ADR 절차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신뢰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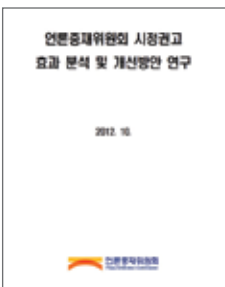
## 양재규 정책연구팀장, 성범죄 보도 관련 토론회 참석



양재규 정책연구팀장은 10월 15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성범죄 보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양 팀장은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인 경우 가해자에 관한 지나친 인적사항 공개 역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정권고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10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시정권고 추이분석, 언론인 및 언론관계자 심층 인터뷰, 시정권고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이 수록됐다.

## 2012년도 영문홍보책자 발간



위원회는 10월 10일 해외에 언론중재제도 및 위원회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영문홍보책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을 발간했다.

새로 발간된 2012년도 영문홍보책자에는 2009년 이후 달라진 위원회의 업무 현황 및 개정 언론중재법 등이 반영됐다.